



유가·금리 하락하며 코스피 상승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전량 제거 발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지속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808.21pt (+0.97%)	826.87pt (-0.03%)	1,071.16pt (+0.99%)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385.30 원 (+2.6 원)	4.2630% (-5.7bp)	7,681.50pt (-0.14%)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2,455 억	+1,929 억	+1,388 억
외국인	-1,051 억	-911 억	+11,232 억
기관	+7,636 억	-1,052 억	-12,590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동 지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동 갈등 완화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유가와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KOSPI는 0.97% 올랐고, KOSDAQ은 0.03% 내렸습니다. KOSPI 거래 대금은 약 22.4조원, KOSDAQ은 약 4.4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1천억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을 매수했고,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7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매수했고, SK이노베이션과 현대모비스를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7월 방한 외국인 증가에 백화점, 화장품, 미용기기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에 원전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인베스터데이 이후 이벤트 소멸로 자동차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갈등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해운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현대건설(+7.50%), 신세계(+6.71%), 삼성전자(+1.75%)가 올랐고, 현대모비스(-6.83%), HMM(-5.74%), 현대차(-3.09%)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